

시론



박 돈 희

전남대 명예교수회 회장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대표이사)

요즘 한일 간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언론은 한일 간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쟁은 승리하는 쪽과 패하는 쪽이 있다. 그렇지만 양국 모두 전쟁의 승패를 떠나 그 결과의 피해와 상처를 감당하여야만 한다. 아마도 경제 전쟁이라면 우리가 결과를 감당하는데 일본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해 본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일본보다 경제규모면에서 앞서있지 못하다. 경제규모가 작기에 피해와 상처도 일본보다 적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리고 한국은 1998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필자는 1997년 IMF위기를 맞았을 때 한없이 원망스러운 탄식을 했었다. 후손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자괴감에서다. 아마도 이러한 경제

지도자는 궤도(軌道)수정을 두려워마라

전쟁이 10년 후인 2029년 양국 간 시작되었다면 양국의 피해가 상당히 비슷하리라 유추해본다. 필자가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은 연일 불꽃이 튀고 있다. 각각각색의 애국충절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가 경청해야 할 의견들이며 그동안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의견들이다. 그의 의견이 국가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각각각색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면 더 열심히 국가부흥에 지도자들이 앞장 서달라는 내용이다. 지도자는 양비(兩非)만 까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미국은 1945년 광복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국가운영 방식과 과학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토대로 경제협력을 통해 여러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1592년 임진왜란시절 조선시대 국동의 고요한 아침 나라가 아니다.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은 4서3경에 매달려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에만 몰두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국제무역 활동과 거리가 먼 세상에서 살았다. 작금의 경제전쟁이 짧게 대략10년

걸릴 것이다. 우리정부는 경제전쟁의 승리를 위한 10년의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계획을 진행한다면 승리는 결코 우리일 것이다. 1997년 10월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일 때 IMF는 우리나라 대통령후보를 모아 놓고 IMF에서 제시한 금융위기 대책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대통령후보들은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현실 앞에서 IMF가 요구한 대책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후 김대중후보는 선거 유세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IMF가 요구한 외환대책요구를 강력하게 수정제의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에선 국제협약이 이미 협정된 문서를 수정한다는 것은 국제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김대중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IMF가 제시하였던 금융대책문서를 수정 제시해 관철시켰으며 결국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2015년 12월12일 파리에서 UN 산하 129개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기후협약을 체결했다. 이 국제기후협약은 우리나라 출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성사시킨 역사적인 일로 세계적 이상기후변화에 대한 대

책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여 지구온도 2도를 떨어뜨려 이상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합심한다는 것이다. 각국이 산업화에 필요한 탄소배출량을 적절하게 줄이는 내용이 행동요령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를 위시해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의 빠른 노력과 협조가 강요되는 협약 내용이다.

격동의 국제질서를 맞아 우리나라 리더들은 국가발전과 국가안보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미국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질서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과감하게 궤도수정을 하는 리더쉽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매미가 죽음을 다하여 생존의 존엄을 위해 암컷을 유혹하는 계절이다. 1597년 9월27일 법성포 칠성바다에서 왜적에 포로가 되어 대략 3년 만에 귀국한 정경득, 정희득 형제의 포로실기인 만사록(萬死錄)과 해상록(海上錄)을 읽으며 그 형제가 포로가 되던 선상에서 어머니, 아내, 제수 그리고 누이동생이 목숨으로 몸을 던져 정절을 지키려 했던 숙연한 모습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있다.

현장칼럼



진 점 옥

진도경찰서장

광복절에 되새겨본 '경찰정신의 뿌리'

수 없는 자리다(백범)”, “왜놈 사정을 잘 아는 인재를 등용한 것이다(도산)”. 밀양 끝에 1919년 8월,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은 우리 역사상 1호 민주경찰인 임시정부 경무국장(現)에 취임했다.

당시의 임시정부 경무국은 청사 경비뿐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보호, 일본군 정탐, 반민족행위자 처단 등의 임무도 함께 수행했다. 정·사복을 포함해 20여명의 인력이었다. '백범일지(白凡逸志)'에는 김구선생이 임시정부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의 기틀을 확립했던 경무국의 활약상이 상세히 실려 있다. 경찰 총수로서 큰 자부심을 가졌던 백범은 경무국장 시절 콧수염을 기르고 백으로 망명한 44살의 독립운동가의 기개를 한 눈에 알아봤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친한 자가 되어도 좋다'던 그는 뜻밖에도 경무국장(현 경찰청장)의 중책을 제안 받았다. '감당할

신과 애국안민(愛國安民)의 척도로 일하라'는 당부는 오늘 날까지 경찰정신의 뿌리가 되고 있다.

사실 일제강점기 경찰은 '순사'나 '하수인'의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경찰을 짓눌러 온 주홍글씨였다. 그들은 조선총독부의 지휘 아래 독립운동가를 체포·고문하였고 오직 식민지 체제 유지에만 기여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경찰은 달랐다. 교민과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그 활동은 임시정부를 지켜낸 힘이 되었다. 경찰청은 8월 12일을 '임시정부 경찰 기념일'로 정하고, 경찰청사에 백범 흉상을 설치했다.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는 선언이었다. 백범 흉상의 표석에는 '정부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꿈인 만큼 가장 낮은 곳에서 겨레를 섬겨 민주경찰의 표상이 되었다'라고 쓰였다.

올해 광복절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맞아 그 의미가 크다. 또 우리 경찰 역사의 1호 민주경찰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안팎 사정은 100년 전에 비해 그리 녹록치 않다. 그 때와 강대국은 제국주의를 앞세워 자국 우선이었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 더하여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은 불법 강점에 대한 사과를 커녕 급기야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광복절을 맞은 한국은 다시금 생존의 길을 모색할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미래를 확신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뼈아픈 역사는 어떤 교훈을 일깨우고 있는가? 백범 김구선생이 일찍이 설파한 자주독립(自主獨立)과 애국안민(愛國安民)에서 답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기고



장 차 영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마스터즈대회 단상

후, 같은 장소에서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는데 5개 종목(경영·다이빙·아티스틱 수영·오픈워터 수영·수구)에서 63개 경기가 개최됐다. 이 대회에는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마스터즈와도 같은 대회였다.

필자는 이번 대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삶의 또 다른 의미가 됐다. 말은 일 전 세계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각 경기장으로 문제없이 출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었다. 본연의 미디어 수송업무는 물론 짧잠이 자발적으로 내·외국인들에게 관광코스 홍보를 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긴급 상황에 놓인 심판이 출구 수송 차량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서천의 국립생태원에 있는 바오밥나무가 국내에서 처음 이태리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5대 스포츠 축제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됐다.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주는 나무처럼 바오밥나무는 말 그대로 사람과 주변의 동물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나무는, 뿌리로 땅 속 수분을 끌어오는데 최대 10만 리터까지 몸에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물을 동물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해준다. 이 나무는 동물들에게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며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한다. 또한 현진인들은 껍질을 벗겨 로프, 바구니, 공예품, 악기의 현 등을 만들고 땀감으로도 쓴다. 더불어 해열제, 말라리아 치료제, 잇몸 염증, 벌레물린 데 등의 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 역시 바오밥나무의 성격들이 그들의 추억 속에서 영원이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피어난다. 한 여름 생기를 더져준 활동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해본다. 더불어 나는 지금 이 긍정의 힘으로 또다시 다른 자원봉사의 길을 찾고 있다.

느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광주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물론 가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활동이었음을 단언할 수 있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때는 라마다호텔의 VIP수송 관련 시스템에서 봉사했다. 배차정보관리 관련 배차조정, 배차수송, 안내데스크 통역과 안내 등을 했는데 나는 관련 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업무를 맡았다. 사실, 자원봉사자들은 참가 선수들과 관광객에게는 광주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가장 옆에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들의 추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피어난다. 한 여름 생기를 더져준 활동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해본다. 더불어 나는 지금 이 긍정의 힘으로 또다시 다른 자원봉사의 길을 찾고 있다.

社說

광주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브랜딩 기대 크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 불리는 AI(인공지능) 열풍에 나서 화제라고 한다. 21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 이 시장은 최근 'AI 슈퍼파워', '초예측',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등 3권의 인공지능 관련 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휴가 때 이 책들을 읽으며 AI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내부계시판에 '우리 같이 AI(인공지능) 공부할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AI(인공지능) 공부 모임'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학습동아리를 꾸린 목적은 광주의 미래 비전인 '인공지능 대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미개척분야인 인공지능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레아 인공지능을 광주만의 경쟁력으로 삼기 위한 차별화된 방향과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이날 안에 '광주시 인공지능 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비전과 청사진을 만드는 일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5년간 4천6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 동안 인공지능 스타트업 창업 1천개를 유치해 고용효과 2만7천500명, 인공지능 전문인력 5천150명 확보 등 미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과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등 R&D 투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연구와 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AI 기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AI+X(주력산업)' 융합과 스타트업 활성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AI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AI와 지역 전략사업인 자동차 관련업체 280곳, 에너지 312곳, 헬스케어 300여곳 등과 접촉해 제품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브랜딩하는 데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3함에 시달리는 노인들 보듬는 안전망 시급

노인들은 대체로 3가지 고통을 겪으며 여생을 살아간다. 경제적 빈곤과 건강악화 그리고 외로움 등 이른바 3고(苦)에 시달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3고(苦)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노인들이 고독사를 당하거나 끝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5천18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은 1천512명으로 전체 29.2%를 차지했다.

특히 노인(65세 이상)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58.6명(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 18.8명, 각 국의 최근년도 기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2.0명이다. 지난 2015년 50.1명, 2016년 48.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나, 매년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주택에서 중증질환을 앓던 노부부가 한낱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과 학수사당이 현장 감시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식 등 가족에게 쓴 편지가 나왔다. 경찰은 편지 내용, 유가족 진술, 이웃 증언 등에 미뤄 치료가 쉽지 않은 중병을 오랫동안 앓아온 A씨 부부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C씨가 알코올 의존자인 아들의 행패가 심해져 자살해한 후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발생했다. C씨는 치매를 앓던 아내를 돌보면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중심의 자살 예방활동이 전반적으로 체계화됐지만, 아직도 손길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서 노인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노인들의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심리 치료와 경제·사회적 보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한달만 새 상장사 5곳 중 3곳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하락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공식화한 이후 국내 주요 상장사 5곳 중 3곳꼴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한달 보름새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반 토막이 났고 여행사와 항공사의 이익 전망치도 대폭 줄었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6일 현재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연결 기준)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24곳 중 61.2%인 137곳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인 6월 말보다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악화했다. 이 중 131곳은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줄었고 3곳은 적자 전환, 3곳은 적자 확대가 각각 예상됐다. 나머지 상장사 중 83곳(37.1%)은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개선(1곳은 적자 축소·1곳은 흑자 전환)됐고 4곳은 변동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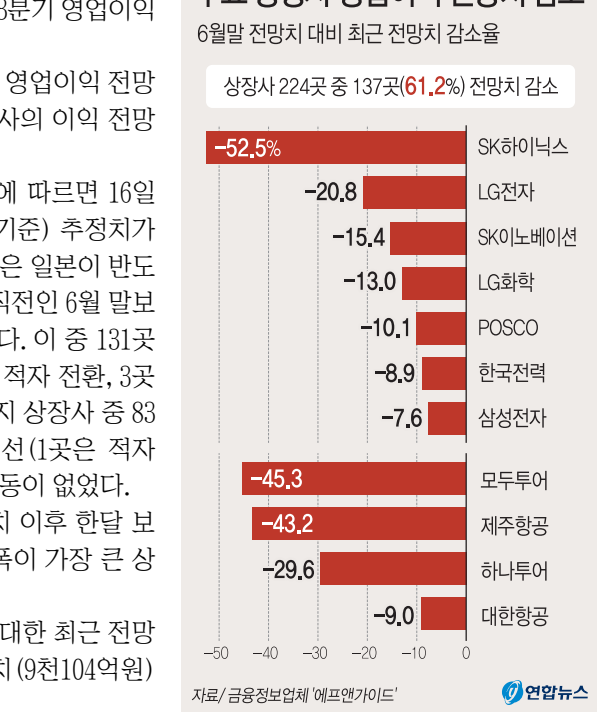
사별로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달 보름 새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감소 폭이 가장 큰 상장사는 SK하이닉스였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최근 전망치는 4천327억원으로 6월 말 전망치(9천104억원)보다 52.5% 줄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는 6월 말 7조5천103억원에서 최근 6조9천395억원으로 7.6% 줄었고 LG전자는 같은 기간 7천451억원에서 5천900억원으로 20.8% 감소했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업손실 전망치는 6월 말 187억원에서 최근 1천922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일본은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의 전망치 감소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기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서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